

민주 '24시간 비상국회 체제' 기대반 우려반

일일 점검회의·국회 상주·국감 아이템 제출 등 뽐뿌한 일정 지역구 활동 자체령에 상당수 의원 "비효율적" 불만 목소리

민주당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24시간 비상국회 체제' 가동을 앞두고 전열 정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당내 불만이 만만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전병헌 원내대표 명의로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운영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 행동지침을 각 의원의 원실에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매주 화·목, 그리고 휴일인 일요일까지 3차례 운영본부회의가 열리며, 의원들의 '야간 이탈'을 막기 위해 매일 밤 9시30분에 일종의 '일석점호인' 심야 일일상황 점검회의가 소집된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 및 상임위 간사 등은 의무 참석대

상이다. 또 매주 1회 정책 의원총회와 주 2~3회 상임위별 대의회의를 각각 열도록 했으며 현안별 홍보기획회의를 수시로 진행해 그 결과를 상황실로 전달토록 했다.

24시간 국회 상주를 비롯, 지역구 활동 자체, 각종 회의 필참, 상임위 협업체계 강화, 기자회견·인터뷰·SNS 활용 등 적극적인 언론 홍보 등 5대 행동지침도 전달했다.

나아가 전 원내대표는 국감 아이টে을 3개 이상 선정, 27일까지 제출하라는 '숙제'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지역구 활동을 정리하고 의원회관으로 '숙식공간'을 옮기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구에 양해를 구하고 집 싸서 올라왔다"며 "몸은 힘들겠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의 지침을 따르기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다른 초선 의원은 "국회 숙박투쟁 참석 현황이 차기 공천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살인적 일정'과 '일률적 행동지침'을 두고 상당수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나는 국회에서 숙박하는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도대체 왜 효율적이지도, 호소력도 없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3선 의원은 "지역구에 못 가도록 발을

목는 것은 바다 민심청취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재선 의원은 "집에 안 가야만 성과가 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쇼'로 보일 수 있다"며 "이러다가 체력만 바닥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응두사미'라는 비판에 직면,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강제지침은 아니더라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상임위별 오·만찬 일정을 릴레이로 소화하며 독려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원내 지도부의 한 핵심인사는 "단식, 삭발 투쟁할 에너지를 국회로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역지도 강제할 수야 없지만 당 대표가 풍찬노숙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결기는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의원, 광주·전남 국회출입기자 간담회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 여부 연말 지역 의원들과 상의 결정"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은 26일 광주시장 선거 출마설과 관련, "올 연말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오전간담회를 하고 "광주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나 아직은 아무 것도 결정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더 쓰임새가 있는지 고민하고 광주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은 정기국회 등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연말쯤 가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전문가인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후퇴' 논란에 대해 "노력도 안 해 보고 못 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한 뒤 "지금 우리나라 재정은 등치는 크면서도 저체중 상태"라며 "체중 늘리기 위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조세부담률은 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면, 즉 부자

감세를 포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24조 9000억원으로 여기에 국제 발행으로 메우야 하는 세수부족액 최소 10조원을 더하면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김대중 정부 5년간 순국가채무 증가액 20조1000억원(연평균 4조)과 노무현 정부 5년간 증가액 31조5000억원(연평균 6조3000억원)을 넘어설 뿐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연평균 증가액 19조 9000억원(5년간 99조6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환위기가 극복,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등을 위해 순국가채무가 증가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무리한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많이 증가했다"며 "박근혜정부가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이명박정부보다 더 극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첨단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3 광주 ACE Fair(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가 2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콘텐츠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전시회에는 40개국에서 404개의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檢, 내란음모·보안법 위반 이석기 기소

여적죄·반국가단체 혐의 제외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수환 수원지검 검사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장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

에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 자택 등에서 이적표현물 200여건을 압수,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적용 여부가 검토된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을 RO 조직 총책으로 지목하고, RO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추가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사실이 아직 6월이나 남아있지만 전남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

/연합뉴스

'채동욱 의혹 조선일보·광상도 前 수석 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채동욱 검찰총장의 '흔외자녀'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이 정보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광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광 전 수석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흔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이후 근거자료로 채모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카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사개 특위, 소득없이 활동 종료하나

'법무장관 불출석' 공방속 파행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황 장관은 검찰개혁안 등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 오진했지만 해도 출석하기로 했으나 회의 시작 15분 전 불출석을 통보했고, 민주당이 "황 장관의 출석 없이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해 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황 장관이 불출석 이유로 '상남보호관찰소에 급히 갈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일은 예전에 터진 것으로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은 지난 6개월간 회의결과 보고서 채택할지 여부에

다"며 "법무장관 대신 차관이 나온 것을 갖고 이 회의 자체가 크게 잘못된 듯 말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이후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황 장관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30일 오후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장관의 해임까지 거론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황 장관의 행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이나 해임건의안을 낼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 "청와대와 여당은 황 장관을 더는 감싸지 말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30일 다시 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이날 말 활동이 종료되는 데다 황 장관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6개월 간의 특위 활동이 사실상 소득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광역시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격:46억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토정보통신연구원 사무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4천
-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4천 (창고,공장 적합)
-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요양병원,축사 적합)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